

[연변 민생실사]

룡정시: ‘기반시설’과 ‘인성화 서비스’로 주민 만족도 상승

룡정시는 민생대상건설을 통해 기반시설을 더욱 보완하고 주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룡정시 동성용진 통산촌—신광촌 구간에서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통행하고 있다. 작년만 해도 이 구간은 도로 표지판과 안전시설이 부족해 통행에 안전 위험이 컸다. 이에 룡정시는 ‘룡정시 항촌 도로 안전 생명 보호 공사’를 추진했다.

이 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시작되었는데 총 20킬로미터 구간에 덕신항, 동성용진, 로투구진 등 7개 항급 도로를 포함, 사고 다발 구간이나 안전시설이 미비한 곳에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부착식 윤곽표, 길목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룡정시교통운수국 부국장 장량은 “이 공사는 올해 9월 완공됐다. 룡산촌—신광촌 구간은 동성용진과 랑전백세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린군 주민들의 농기계부터 관광버스, 자가용, 화물트럭까지 다양한 차량이 리용한다. 공사를 통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크게 낮췄다.”고 말했다.

기자가 현장을 찾았을 때 리원가두 삼봉동에 위치한 뽕프실에서 작업일군이 급수시설을 점검하고 있었다.

룡정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은 봉림사회구역과 유신사회구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2단계에 걸쳐 급수 개조 공사를 진행했다. 1단계에는 약 132만 7,000원을 투입해 유신사회구역 삼봉동에 4,652미터의 상수도관을 설치



하고 29개의 검사정, 깊이 130미터 우물 1개, 뽕프실 1동을 건설했다. 2단계에는 180만원을 투자해 리원가

두 봉림사회구역에 3,158미터의 수도관망을 설치하고 18개의 검사정, 깊이 130미터 우물 5개, 뽕프실 5동을 마련했다.

삼봉동 주민 진병경은 “올해 5월 20일부터 24시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아 식수 문제가 해결됐다.”고 전했다.

룡정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총진건설과 서원명 과장은 “이 공사로 532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봤다. 앞으로 관련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룡정시에서는 도시 가스배

관 및 로후시설 개조(구시가지, 하서구역)의 일환으로 열공급배관과 급수배관도 함께 교체했는데 구시가지의 34.14킬로미터의 가스배관, 48.86킬로미터의 열공급배관, 22.55킬로미터의 급수배관, 하서구역의 15.92킬로미터의 가스배관, 56.68킬로미터의 열공급배관, 5.4킬로미터의 급수배관을 개조했다.

룡정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도시건설과 박경철 과장은 “현재 로면복구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섰는데 작업이 완료되면 가스 공급의 잠재적 위험이 해소되고 난방 및 급수 공급 능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만아파트단지과 수안인가아파트단지 사이에 막혀있는 도로는 주민

들의 불만이 큰 곳이었다. 휴먼지가 심할 뿐만 아니라 통행 자체가 불가능해 우회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에 룡정시에서는 해당 도로 개조 사업을 계획하고 올해 5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박경철 과장은 “총 190만원을 투자해 3,000평방미터 도로를 정비했다. 3개월간의 공사 끝에 8월말부터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리원가두판사처 민정간담실에서는 사업일군이 방문한 주민들에게 80세 이상 고령 보조금 수령 방법을 친절히 설명하고 온라인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었다.

리원가두 리원사회구역 당총지 부서기 겸 주민위원회 주임인 고영은 “과거에는 로인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서류가 부족해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리원 심부름군(梨小二)’ 스마트 플랫폼을 개설하고 특별 서비스 코드를 설계했다.”며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주민들이 직접 방문하

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QR 코드는 관내 아파트단지의 눈에 띄는 곳에 부착되어있으며 가정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해당 조건에 부합되는 리원가두의 397명 로인 전원이 고령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

룡정시정무대청 2층 의료보장서비스구역에서는 사업일군이 정책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룡정시위생건강및의료보장국 김준매 부주임은 “길림성정부의 <령할취업인원 등 군체의 의료 및 생육 보장 관련 정책 최적화에 관한 통지>에 따라 령할취업인원, 농민공, 신취업형태 로동자 등 5가지 류형을 생육보험 범위에 포함시켰다.”며 “올 10월부터 시행된 이 정책에 따라 령할취업인원이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종업원(생육)의 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출산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 김영화기자



안도현: 대상 ‘다각도’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안도현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민생대상건설을 단단히 틀어쥐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 안도현은 민생대상건설에 집중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안도현운수처리장에서는 설비 교체 작업이 한창이었다. 총 5,313만 1,900원이 투입된 이 대상에는 뽕프, 송풍기, 수동 및 자동 발브, 축전기 캐비닛, 작동기, 수위 측정기 등 약 330여개 설비 교체가 포함된다. 지난 8월 8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이후 이미 로후 설비의 70%를 철거하고 20%의 새 설비를 설치했다.

안도현건설운수처리유한책임회사 조철영 총경리는 “래년 12월까지 모든 승격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공사 완료후 강화된 처리공정을 거쳐 부르하통하로 배출되는 수질이 개선되고 전력

소비량도 줄어 년간 221.76톤의 석탄을 절약하고 779.47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도현중의병원에서는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증축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총 3만 5,000평방미터 부지에 6,000만원을 투입해 6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이 대상은 지난 4월 18일 착공되며 3개월 만에 구조 공사를 마쳤다. 래년 3월 준공 예정인 이 건물은 진료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진료구역을 체계적으로 배치하며 써

비스 절차를 최적화해 전통 중의 문화와 현대 의료 수요가 조화된 특색 있는 진료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의약 진료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림상 효율을 높여 더 많은 주민이 량질의 중의약 건강 서비스를 향수할 수 있도록 한다.

안도현중의병원 강해원 부원장은 “현재 여러 과가 한공간에 밀집되어 있는 등 외래진료실 배치가 비합리적이다. 재활치료센터에 소아과, 이비인후과, 부인과 진료실이 함께 있고 소아과의 경우 환자가 많아 정형외과 진료실의 절반을 임시로 사용하는데 어린이들의 울음소리가 다른 환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건물은 각 층별로 진료실과 검사실을 합리적으로 배치해 환자들의 진료 경험을 향상시키고 넓은 진료실과 다양한 의료 장비로 더 편리하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안도현의 대표적인 민생사업으로 꼽히는 시내버스 로선 확대 사업은 안도—복산, 안도—무학 등 로선을 시작으로 전부 개통되었다. 총 562만원이 투입된 이 대상은 10개 로선, 30여개 마을을 연결하며 약 만명에 달하는 촌민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2023년말 경영 악화로 기존 운영업체가 운영을 중단하자 안도현도시빠스려객운수유한회사가 주변 촌민들의 현재 이동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3년째 로선을 운영중이다. 해당 회사는 3단계에 걸쳐 로선을 개통했는데 2023년에 안도—복하촌, 안도—복리촌, 안도—이정촌 등 3개 로선, 2024년에 안도—동복촌, 안도—대흥촌, 안도—중평촌, 안도—봉암촌, 안도—산천촌 등 5개 로선, 올해에는 안도—복산촌, 안도—무학촌 등 2개 로선을 각각 개조 개통했다.

안도현도시빠스려객운수유한회사 왕옥동 총경리는 “촌으로 연결되는 10개 로선은 모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운행되고 양로원 전용 로선도 별도로

운영중”이라며 “주민들이 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각 마을별 위치 그룹채팅방을 운영하고 10명 이상이 예약하면 추가 운행하는 예약 승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 2년간 운행한 안도—동복촌 로선의 경우 적어도 월 1회는 추가 운행을 실시할 정도로 리용률이 높다.”고 말했다.

2023년 7월 시작된 안도현 공공급수관망 정돈 대상은 올 6월 모든 공사를 마치고 가동중에 있다. 이 대상을 통해 30킬로미터의 급수관망을 개조하고 원격 감지 센터가 장착된 2만개의 수도 계량기, 36개의 뽕프실 급수설비, 108곳의 압력 검측 지점을 교체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 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 프로그램, 요금 납부 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대상 책임자 황문과는 “개조전에는 주민들로부터 루수나 수압 저하 신고를 접수하면 기술자를 파견해 응급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개조를 통해 구축된 플랫폼에서 24시간 모니터

링만으로도 최단 시간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개조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급수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올해 안도현질병예방통제센터는 작업 환경이 먼지, 소음 등 유해 요소에 노출되어있는 근로자들의 직업병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업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안도현질병예방통제센터 직업병과 진검림 과장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주요 업종이나 기업의 작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먼지 채집기, 소음 분석기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샘플을 채취 및 검사하고 있다. 올해 총 65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기구에서 직업병 검진과 건강검진을 완료했다.

이외 안도현제1유치원 교사 및 부속시설 신축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총 3,516만원이 투입되며 총면적 5,030평방미터 규모의 이 대상은 1개의 교사와 1개의 경비실을 포함하고 있는데 완공후 약 270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도현제1유치원 장나 원장은 “자동 소화, 자동 경보, 소방 연동 제어 설비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전문 검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등 유치원은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에 투입되면 해당 지역의 학령전 아동 등원 수요를 더욱 충족시키고 아이들이 기본적, 량질의 학령전교육을 받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영화기자

